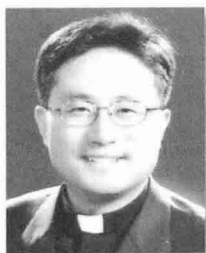


삶과 죽음에 관한 그리스도 신앙적 성찰

박 준 양 세례자 요한

가톨릭대학교 교의신학 교수 · 신부



11 월은 위령 성월이다.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

도 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는데, 이는 시원종말론적 사상이란 보다 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 신앙에서의 시원종말론적 사상이란 창조론과 원죄론, 그리고 종말론에 관한 믿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신앙에 있어서의 삶과 죽음에 관한 성찰,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종말론적인 믿음은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시원종말론적 맥락에서의 인간과 그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창조론이란 우주와 세상과 인간의 창조에 관한 신학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창조하셨는가에 관한 물음과 그와 관련된 의미 추구를 골자로 한다. 창조론은 주로 구약 성경의 창세기(Genesis)를 근거로 하여 형성되었으나, 이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의 기본 사상이기도 하다. 반면에, 원죄론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그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여 타락해가는가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신학이다. 원죄론 역시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적

인 믿음이기도 하다. 바로 이 원죄론에서부터 그리스도 신앙의 구원 신학이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이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의지 안에서 완성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신학이다. 이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깔려 있는 사상이며, 모든 그리스도 신학적 전망의 종합적 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 신앙의 시원종말론적 믿음, 즉 창조론과 원죄론, 그리고 종말론의 내용이 신학적으로 난해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학 사상을 매우 상징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는 미술 작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서구 르네상스(Renaissance) 시대 예술의 최대 거장으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의 걸작품인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다. 이 두 작품은 모두 이탈리아 로마에 소재한 바티칸 교황청(Vatican City)의 바티칸 박물관(Musei Vaticani) 내부에 있는 시스틴 경당(Cappella Sistina)에 위치하고 있다. 창조론과 원죄론적 사상은 9개의 주제화로 구성되어 창세기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천정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종말론적 사상은 거대한 프레스코 벽화인 “최후의 심판”에서 잘 발견된다. 이 그림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끔 도와준다.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왜 인간의 삶에 죄(罪)와 악(惡)의 실재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

고 구원으로 이끄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천지창조”의 첫 그림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는 장면을 묘사한다(창세기 1,3-5 참조). 이 “빛의 창조”에서, 돌풍 속에 옷자락을 휘날리며 거꾸로 회전하고 있는 듯이 묘사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창조의 큰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고 창세기의 저자는 설명한다. 아무 것도 없는 비존재(非存在, 즉 무(無)의 현실로부터의 새로운 창조(creatio ex nihilo)가 지니는 역동성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핵심적 메시지인 것이다.

그러나 세상과 우주의 창조는 네번째 그림인 “아담(Adam, 인간 또는 남자)의 창조”에서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의 창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세기 1,26-27). 여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음이 강조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하게 이를 묘사한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 때에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기 2, 6-7).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그 외적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靈, ruah)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를 이른바 ‘구강대 구강’(mouth to mouth) 호흡법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인간의 손가락에

마주 닿는 형태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다섯번째 그림은 다음에 나오는 여자의 창조를 묘사한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세기 2,21-25). 이는 태초부터 삶의 동반자로서 창조되어 서로의 인격적인 보완을 통하여 생명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 운명인 ‘동반자성’(partnership)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불행히도 죄의 유혹에 빠져 인간 세상에는 악(惡)의 실재가 생겨나게 된다. 이는 미켈란젤로의 여섯번째 그림이다. 뱀으로 상징되는 유혹자에게 홀려 죄에 빠지는 태초의 인간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창세기 3,1-7). 인간은 범죄 후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변명을 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는 왜 인간 안에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 즉 죄성(罪性)이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죄론적 성찰이다.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했던 교만(superbia)의 유혹에 빠진 인간들에게는 분열과 상처가 생기게 된다. 즉, 그들의 두 아들인 카인과 아벨이 분열되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죽이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창세기 4,2-8 참조). 이러한 인간의 죄는 또다른 죄를 계속 낳게 되고, 결국 타락한 인류를 하느님께서 물로써 벌하시고 정화하시는 것이다. 미켈란젤로의 여덟번째 그림은 이러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창세기 7,17-24 참조)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죄의 굴레에 묶인 인간을 하느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그분의 대속적 죽음, 그 희생의 제사로써 구원하신다. 그러나 그 구원 사업의 완성은 세상 종말에 유보되어 있는데, 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형상화되고 있다. 티모테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관하여 설명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제 때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설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뵈일 일 없고 뵈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티모테오 1서 6,14-16). 한편, 티토서는 다음처럼 말한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줍니다”(티토 2,13).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의 묵시록에서는

이러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사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묵시록 1,8). 이러한 주님의 재림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연결된다: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 주겠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묵시록 22,12).

천정 벽화인 “천지창조”가 1508년과 1512년 사이에 3년 동안 그려졌다면, 중앙 벽에 위치한 벽화인 “최후의 심판”은 보다 늦게 23년 후인 1535년부터 1541년에 걸쳐서 그려졌다. 이는 우주의 통치자이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마태오 복음서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대목과 매우 관계가 깊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별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마태오 25,31-33. 46).

심판은 우리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는 두려운 사건일 수도 있겠으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 고뇌와 탄식, 그 한계가 근본적으로 극복되는 희망의 사건이기도 하다. 바오로 사도는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이러한 희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로마 8,22-25).

이러한 희망의 근거는 바로 모든 이를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이를 위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은총을 인간에게 전달하시고 통교하시는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즉,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희망의 최종 근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 복음 6장 39-40절에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보 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It is my Father's will that whoever sees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ould have eternal life, and that I should raise that person up on the last day).

